

김승연 회장, 현장경영 분주… “독보적 국방 AI 역량 키워야”

〈한화그룹〉

경북 구미 한화시스템 사업장 방문
첨단 방산제품 생산·시험시설 점검
협력사 포함 안전관리 중요성 강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올해 두 번째 현장경영 행보로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을 찾았다. 지난 1월 제주우주센터에서 우주사업 경쟁력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룹 방산사업의 핵심 축으로 키우고 있는 인공지능(AI)과 체계통합 역량을 직접 점검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미래 방산 기술 경쟁력을 점검하고 ‘독보적인 국방 AI 역량’ 확보와 ‘안전제일’을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22일 경북 구미 한화시스템 사업장을 방문해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첨단 방산제품 생산·시험시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동관 수석부회장이 22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을 찾아 천궁 다기능레이다 시험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화그룹

양기원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등이 동행했다.

김 회장은 먼저 K-방산을 대표하는 수출 품목인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천궁-II’의 핵심 센서인 다기능레이다(MFR) 조립·시험 현장을 찾았다. 다기능레이다는 항공기와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요격미사일 유도를 지원하는 핵심 방공장비다. 한화시스템은 해당 레이다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에 수출하고 있다.

이어 AI 기반 통합방공체계 개발 현황도 점검했다. 레이다와 전자광학센서 등 감시체계와 대공포·유도무기를 연결

해 복합 위협에 대한 판단과 대응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대형 근접전계시험장에서는 천궁 다기능레이다와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적용되는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다의 시험·검증 역량을 살폈다.

해양분야에서는 통합함교체계(IBS)와 함정전투체계(CMS) 등을 점검했다. 한화시스템은 이를 기반으로 AI 기반 지능형 전투체계와 자동교전·자율항해, 유·무인 복합작전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한화그룹 방산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은 AI이며, 그 중심 역할을 한화시스템이 맡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국방 AI 역량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할 기본 원칙으로 안전을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큰 성과는 안전에서 출발한다”며 임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까지 포함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주문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약 2800억원을 투자해 구미사업장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한 8만9000㎡ 규모로 구축했다. 약 1500평 규모의 클린룸과 첨단 생산·시험시설을 갖춰 국내외 방산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김 회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제주우주센터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현장경영이다. 당시 민간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에서 우주사업 기술 경쟁력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K-방산 주요 생산·기술의 중심점인 구미사업장을 찾아 AI 기반의 미래 방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한화시스템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AI·체계통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수영부터 러닝까지… 손목 위 ‘운동코치’

체험기

갤럭시 워치 울트라2

갤럭시 워치 최초 수심 측정기능 탑재
운동강도 분석… 신체부담 정도 파악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수영하다 손목을 내려다봤다. 물이 깊어질수록 눈길 이 간 것은 위치에 표시되는 수심이였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울트라2’를수영부터 러닝, 요가까지 일상적인 운동에 직접 활용해봤다.

평소 주 2회 수영을 하면서 위치로 주로 확인한 것은 거리와 운동 시간이었다. 하지만 울트라2를 차고 해운대 바다에 들어가자 달랐다. 수영장에서는 얼마나 헤엄쳤는지를 봤다면 바다에서는 수심과 수온을 확인하기 위해 손목을 자주 들여다봤다. 울트라2는 갤럭시 워치 최초로 수심 측정 기능을 탑재해 물속에서 현재 수심과 수온, 머문 시간을 보여준다. 워터파크에서도 파도풀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봤다. 강한 파도를 반복해서 맞았지만 위치는 문제없이 작동했다.



복우 속 야외 러닝 중 갤럭시 워치 울트라2로 운동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러닝을 하는 날에는 운동화를 신기 전부터 위치를 봤다. 아침에 에너지 점수가 낮게 나오면 평소보다 운동 강도를 낮췄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계획한 운동을 이어갔다. 에너지 점수에는 전날 활동과 수면 등이 반영된다.

인터벌 러닝을 할 때는 정해진 시간만큼 쉬고 다시 뛰는 대신 위치에서 심박수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한 뒤 다음 구간을 시작했다. 심박수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으면 조금 더 쉬었다.

복우 경보가 내려진 날에도 울트라2를

차고 달렸다. 옷과 운동화가 흠뻑 젖을 정도로 비를 맞았지만 운동 기록은 정상적으로 이어졌다.

울트라2에는 운동 중 땀 손실량을 토대로 필요한 수분 섭취량을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됐다. 단순히 달린 거리와 시간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운동 중 몸 상태를 살피는 정보가 늘어난 셈이다.

러닝이나 수영을 하고 난 뒤에도 위치를 확인했다. 울트라2의 ‘일일 유산소 부하’는 최근 운동 강도를 분석해 몸에 쌓인 부담을 보여준다.부담이 높게 나온 날에는 요가를 하고, 컨디션이 괜찮은 날에는 러닝이나 수영을 이어갔다. 요가를 시작하면 운동 시간과 심박수도 함께 기록됐다.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탈 때도 앞선 운동의 부담을 확인한 뒤 강도를 조절했다.

밤에도 울트라2를 착용했다. 아침이면 렘수면과 깊은 수면 시간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에서는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코칭도 받을 수 있었다. 씻고 준비하는 약 1시간 동안 충전하면 하루 종일 착용해도 밤에는 30% 이상 남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전자, 獨 빌트인 가전 상설 쇼룸 개관

AI 기반 스마트 주방 구현

삼성전자가 독일 주방산업 중심지에 빌트인 가전 상설 거점을 마련하고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독일 가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빌트인 시장에서 현지 주방·가구 전문점과의 접점을 넓혀 기업간거래(B2B) 판매망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뢰네의 키친 센터 뢰네(Kitchen Center Lohn e-KCL) 1층에 약 480㎡(약 145평) 규모의 빌트인 가전 상설 쇼룸을 개관했다.

뢰네는 독일 주방산업의 약 3분의 2가 밀집한 지역으로 매년 주방가구·가전 전시회인 ‘뮌헨마일레(Kuchenmeile)’가 열린다.

독일은 빌트인 가전 비중이 높은 시장이다. 시장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가전시장 매출의 50% 이상을 빌트인 제품이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약 65%가 주방·가구 전문점을 통해 판매됐다.

삼성전자는 쇼룸을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주방으로 꾸몄다.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주요 빌트인 가



삼성전자가 독일 뢰네에서 빌트인 가전 상설 쇼룸을 개관했다. /삼성전자

전을 실제 주방처럼 배치했다.

전시 제품은 스마트싱스로 연결해 가전 간 연동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대에 따라 세 가지 빌트인 주방 패키지도 구성했다.

현지 주방 구조에 맞춘 설치 방식도 선보였다. 식기세척기 위에 쿡탑을 설치하거나 가구 도어 패널을 식기세척기에 부착해 주방 공간과 가전을 하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상설 쇼룸에서는 유통 파트너를 대상으로 제품 교육과 상담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향후 유럽 각국의 주방산업 파트너가 활용할 수 있는 거점으로 쇼룸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LG, MS 전략적 파트너십… 글로벌 AI 사업 속도낸다

구광모 대표 등 양사 경영진 교류
데이터센터·AX 등 협력범위 확대

LG가 엔비디아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와도 손잡고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AI 데이터센터(AIDC)와 퍼지컬 AI부터 전사적인 AI 전환(AX)까지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 범위를 넓히며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LG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 MS 본사에서 구광모(현) LG 대표와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경영진 회의(TMM)를 열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봉

석(현) LG COO, 류재철 LG전자CEO, 홍범식 LG유플러스CEO, 현신균 LG CNS CEO 등 그룹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양사는 AIDC 분야에서 MS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확대에 맞춰 LG의 냉각·전력·IT 인프라 솔루션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단기적으로 주요 전략 거점의 대용량 냉각 솔루션 공급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속한 증설이 가능한 프리패브 데이터센터까지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퍼지컬 AI에서도 협력을 이어간다. LG는 제조·물류·모빌리티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 학습을 확대하고 MS의 고성능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 데이터 수집과 학습을 가속화한다. 이는

앞서 엔비디아와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플라이휠’과도 연결된다. LG는 엔비디아와 제조·물류 데이터를 활용해 로봇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올해 말까지 10만시간 규모의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사 AX도 본격화한다. LG는 전사 사무직을 대상으로 MS 코파일럿을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E7: Frontier Suite 등 AI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해 업무 방식을 AI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LG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지난해 12월 MS 본사에서 열린 테크쇼에서 양사 간 전략적 협력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수개월에 걸친 실무 협의와 경영진 간 교류를 통해 구체화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한화에어로, 美 아칸소 탄약생산 거점 구축

7년간 3조 투자… 美 사업기반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아칸소주에 첨단 탄약 생산거점을 구축하며 현지 방산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법인 한화디펜스USA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아칸소주 미 육군 기지인 파인블러프 아스널(PBA)에서 현지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한화디펜스USA가 지난 1월 미 육군이 공모한 파인블러프 아스널 부지 임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현지 탄약 생산거점 조성에 착수하는 첫 단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7년간 22억 달러(약 3조원)를 투자해 해당 부지에 한화 첨단 제조 캠퍼스(Hanwha Advanced

Manufacturing Campus)’를 조성하고 약 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캠퍼스에는 155mm 포탄 구성품과 추진장약 생산시설이 들어선다. 원료 투입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 공정을 수직계열화하고 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통합 제조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미국 내 탄약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현지 탄약 산업 기반의 현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마이클 쿨터한화디펜스USA 대표이사는 “한화의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투자 및 고용 창출 등을 통해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나가고 있다”며 “향후 미국 탄약 산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양국 방산 협력 확대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